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㉓ 약재로 활용된 차

병치료 약재료로 사용된 茶

오랜 세월동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차를 활용한 사례가 흔하다. 특히 술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적극 활용했던 시기는 대략 진(晉)나라 때부터다. 이후 수나라 문제가 두통을 치료한 것이 차였다. 이 사례는 초의 선사도 〈동다송〉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수나라 문제가 세자로 있을 때, 꿈에 귀신이 그의 골수를 바꾸더니 이로부터 머리가 아팠다. 홀연히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가)산 속에서 자란 차로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가 차를 복용하여 두통이 없어졌다. 이에 세상에서 비로소 차 마시는 것을 알았다.(隋文帝 微時 夢神易其腦骨 自而腦痛 忽遇一僧云 山中茗草可治 帝服之有效 於是 天下始知飮茶)

결국 수 문제는 승려의 제안으로 차로 두통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사찰에서 일부 승려들이 차를 마시며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차의 이로움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 문제는 승려의 조언에 따라 차를 마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 이는 차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세상에서는 차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전인 진(晉)나라에서도 차를 마셨다.

실제 중국 차 문화는 8세기 육우가 차의 역사를 집대성한 후 음다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그의 연구를 통해 확립된 제다와 탕법은 좋은 차를 생산,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니 이로부터 중국의 차 문화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실로 중국인의 생활에 차가 빠질 수 없는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대략 8세기 말에서 9세기 무렵인데, 이런 음다(飮茶)의 확산은 육우가 새롭게 제시한 제다법이 출현하여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전희(茗戰戲)에 사용할 차싹.

〈동다송〉서 두통치료 사용 확인
안구 문제·뼈마디 통증에도 탁월

한편 기운이 허해져 열이 오르는 병이 허열(虛熱)을 차로 치료하는 방법이 〈속신이기(續神異記)〉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환선무 때에 장수를 인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행군하면서 병이 난 후 허열이 났다. 곧 차를 마시고 다시 차를 마시게 하여 일곡 두 말을 마시자 너무 배가 불러 승합(물의 양을 재는 단위)쯤을 줄여 마셨다. 이어 부족하다 여겼지만 집이 가난하여 하루를 더 마시지 못했다. 후에 어떤 객이 차를 만들어 다시 차를 마시고 병이 나았다. 또 먼저 들으니 세상에서 이 병이 나면 바로 차 오승을 마시게 하였다. 바로 크게 토하면서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마치 승대처럼 입이 있었다. 형질은 쭈글쭈글하고 모양은 소의 배 가죽 같았다. 객이 곧 동이에 (이것을)담아 일곡 두말의 차를 붓게 하였다. 소의 뱃가죽 같은 것이 (찻물을)모두 다 흡수하고 나니 작은창자처럼 느껴졌다. 또 오승을 더 마시니 다시 모두 혼연하여 (소뱃가죽 같은 물건)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미 이것을 다 토하고 나니 허열병에 차도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무슨 병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길 이 병을 곡이하라 부른다고 하였다.(桓宣武時,有一督將,因時行病後,虛熱,更能飮複茗,必一斛二斗乃飽,纔減升合,便以為不足,非復一日家貧。後有客造之,正遇其飮復茗,亦先聞世有此病,仍令更進五升 乃大吐,有一物出,如升大,有口,形質縮縐,狀如牛肚。客乃令置之於盆中,以一斛二斗複茗澆之,此物歙之都盡,而止覺小脹;又加五升,便悉混然從口中湧出。既吐此物,其病遂差。或問之 此何病 答云此病名斛二瘕)

곡이하(斛二瘕)란 차를 일곡 두말을 마셔야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곡은 10말을 의미한다. 그러니 12말의 차를 마셔야 병이 치료되는 셈이다. 윗글에 인용된 환선무는 바로 환온(312~373)을 말한다. 그는 동진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자는 원자(元子)이다. 지금의 안휘 회원현 용항진(安徽懷遠縣龍亢鎭) 사람으로, 동진 때 주요한 군사 전문가로 권신이었다. 여러 차례 북벌(北伐)에 참여하였고, 동진의 실제 권력을 장악, 황제의 지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북벌에서 대패한 후 그의 명성이 손상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후 선무라는 시호를 받았다. 위 글에서는 그가 거느린 장수 중에 행군 도중 허열병을 얻어 차로 치료한 과정이 드러났다. 이는 환온이 북벌에 참여 장수들을 독려했을 때 그의 휘하 장수 중에 허열병을 얻어 차로 치료한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대 육정찬이 편찬한 〈속다경〉의 〈서초론(瑞草論)〉에는 차의 약리를 이렇게 서술해 두었다.

차의 쓰임은 맛이 차다. 만약 열이 나거나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이 뻑뻑하거나 온몸이 불편하거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으면 4~5잔의 차의 마신다. 제호나 감로와 나란히 할 수 있다.(茶之爲用 味寒若熱渴 凝悶胸 目澁 四肢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甘露抗衡也)

서초(瑞草)는 상서로운 풀을 의미한다. 차는 가수(嘉樹)라고도 하며 영초(靈草)라 불렀다. 이는 차의 가치와 효능이 탁월하여 귀한 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차는 찬 성질을 지녔으니 음성 식물로 분류한다. 양은 따뜻하고 음은 차다. 이는 물질을 기질로 분류한 것이다. 차가 음성 식물이라면 차의 청미(淸味)는 차의 기질이다. 그러므로 맑고 담박한 차의 맛과 활활한 기운은 탁한 기운을 삭이고 번거로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차의 변용인 것이다.

〈서초론〉에서 차는 열이 나거나 갈증이 날 때 눈이 뻑뻑할 때 잘 다린 차를 마시면 눈이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정황을 느낄 수 있다. 온몸이 뻐근하거나 모든 마디가 펴지지 않을 때도 차를 4~5잔을 거듭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㊻

1. 8정도(八正道)에 대한 서술로 바른 것은?

①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설명한 것이다.
②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법이다.
③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입각한 열반 성취의 길이다.
④ 해탈의 길은 오직 고요한 명상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⑤ 몸으로 행하는 실천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정신수행만을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해설 : 팔정도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중, 고통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도성제의 구체적 내용들을 말한다. 팔정도는 바른 인식인 '정견', 바른 생각인 '정사유', 바른 언어인 '정어', 바른 행동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노력인 '정정진', 바른 관찰인 '정념', 바른 집중인 '정정'의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른 인식인 정견으로 시작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말한다.

2.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성제 : 열반에 이르는 길이며, 구체적 수행방법으로 8정도 수행을 제시함.
② 멸성제 : 모든 괴로움과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열반이나 해탈의 상태.
③ 고성제 : 인간의 현실은 절대 괴로움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에 의해 괴롭다고 생각 함.
④ 사성제 : 괴로움의 모습과 그 원인을 밝히고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와 그에 이르는 길을 밝혀줌.
⑤ 집성제 : 괴로움은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집착 및 탐욕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해설 : 인간의 현실은 괴로움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아니라고 착각하기에 고통이 연속된다는 사실이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이다. 이 착각은 무지와 집착, 탐욕과 같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즉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며, 고성제는 집성제의 결과이다.

3. 불교는 평안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팔정도의 덕목 중 '자신에게도 이롭고 사회에도 유익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정견(正見) ② 정정(正定) ③ 정명(正命)
④ 정업(正業) ⑤ 정사유(正思惟)

해설 : 정명이다. 위 팔정도의 해설에서 바른 생활은 정명이었다. 정업은 바른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하는 더 많은 범위의 행동들인 몸(신)과 말(구), 그리고 뜻(의)의 삼업을 바르게 함을 말한다.

4. 인간 현실에서 부딪치는 괴로움의 모습과 원인,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와 그것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설명하는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교설은 ?

① 12연기 ② 사성제 ③ 12처설 ④ 오온설 ⑤ 윤회설

해설 : 사성제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사성제의 개별 항목에 속하는 것들로서 12연기는 집성제, 12처설, 오온설, 윤회설은 고성제와 집성제에 두루하는 정의이다.

5.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어 - 생각을 표현할 때는 정직하고 부드러운 말로 한다.
② 정명 -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회에도 유익한 직업을 가진다.
③ 정업 -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한다.
④ 정념 - 계·정·혜 삼악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사유한다.
⑤ 정정 - 정신집중으로 평온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한다.

해설 : 계학, 정학, 혜학은 삼학으로 불교수행의 기본적 틀이다. 삼악은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 가지 존재양식을 말하며, 혹 삼독이라 할 때는 탐, 진, 치의 세 가지 번뇌를 가리키기도 한다.

정답 : ① ③ ② ③ ③ ④ ② ⑤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